



日복용횟수 3번→2번으로, 복용편의성 높여, 치료 효과 향상 기대 복지부 지원받아 유나이티드·광동제약·JW신약 공동개발 성과



레보틱스CR서방정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의 '레보틱스CR서방정(성분명 레보드로프로피진)'은 한국서세계 최초로 허가된 진해거담제 개량신약이다.

급성 만성 기관지염 환자의 기

침을 가라앉히는 데 쓰인다.

'레보드로프로피진' 오리지널 제품은 현대약품이 1999년 이탈리아 제약사 돔페로부터 시럽제 형태로 들여온 '레보투스'다.

레보틱스CR서방정은 기존 하루에 3회 먹던 진해거담제를 2회만 먹도록 개발해 환자의 복용 편의성을 높였다.

체내에서 약물이 천천히 장시간에 걸쳐 방출되는 알약인 '서방정'으로 만들어져 약효 지속시간을 늘렸다. 속방층과 서방층의 2중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레보드로프로피진'은 기존 중추신경에 직접 작용해 기침을 억제하는 약물과 달리 말초신경에 관여해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우수한 비마약성 진해거담제로 알려져 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기존 정제보다 편의성과 복용 순응도를 높였기 때문에 급성, 만성 기관지염 환자들의 치료 효과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개발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첨단의료 기술개발사업(신약개발 비임상 임상시험 지원, 2014.7~)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력으로 레보틱스CR서방정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다.

'레보틱스' 개발에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뿐만 아니라 광동제약, JW신약도 함께 참여했다.

광동제약(대표 최성원), JW신약(대표 백성호)과 지난해 7월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고,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이다.

강덕영 대표이사는 "이번 성과는 정부의 지원과 지속적인 R&D 투자로 이뤄진 것이다. 개발에 도움을 주신 보건복지부 및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레보틱스의 올해 매출액은 약 50억원으로 예상된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진해거담제의 개량 신약 허가는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 첫 허가에 해당한다"며 "이번 성과는 정부의 지원과 지속적인 R&D 투자로 이뤄진 것이며 레보틱스 개발을 주도한 제약사로 세 회사가 출시하는 제품 생산은 모두 유나이티드에서 맡게 된다"고 말했다.

오는 7월 1일 공식 출시될 예정이다.

〈이미연 기자 / dongdongtro@naver.com〉

머리카락 3분의 1두께 마이크로니들 기술..유효성분 흡수 뛰어나 보령, 임상서 트러블 중증도 64.4% 개선, 피지분비량 59.8% 감소



트러블큐어

피부 트러블을 깨끗하게 관리해주는 패치형 제품인 '아크로패스 트러블 큐어'가 출시됐다.

보령제약이 만든 '아크로패스 트러블 큐어'는 히알루론산과 트러블 케어 유효성분 100%로 만들어진 마이크로니들(Microneedle)이 트러블 부위

에 직접 침투해 피부를 깨끗하게 관리해준다.

보령제약은 마이크로니들패치 기술을 보유한 라파스와 함께 신제품 '아크로패스 트러블 큐어'를 3월 22일 출시했다.

보습력이 뛰어난 히알루론산과 트러블 개선 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 올리고펩타이드-76 성분을 머리카락 3분의 1두께의 마이크로니들 형태로 건조시킨 피부 트러블 전용 패치다.

아크로패스 트러블 큐어의 마이크로니들은 유효성분의 침투를 막는 각질층을 뚫고 피부 속에 직접 침투한 후 피부 속 수분에 의해 용해·흡수된다. 즉 마이크로니들이 상처없이 각질층을 뚫어주고 뚫힌 각질층을 통해 유효성분이 피부 깊숙하게 흡수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바르는 제품

보다 빠르고 즉각적인 트러블 개선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강점.

한국피부임상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 제품을 사용한 피시험자의 90%가 트러블 개선 효과를 경험할 수 있었다. 트러블 중증도 64.4% 개선, 피지분비량이 59.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이 적합하다. 트러블 큐어는 보습과 트러블 개선을 위한 주성분 외에 피부 침투나 흡수, 보존을 위한 화학 첨가물들이 함유되지 않아 임상시험에서도 피시험자들의 알레르기성, 자극성 접촉피부염에 대한 이상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다. 민감한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라파스(대표 정도현)는 "그동안 병원을 통해서만 팔았던 피부 트러블 전용 패치인 '아크로패스 트

러블 큐어'를 보령제약과 손잡고 약국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라파스는 지난해 9월 아크로패스 트러블 큐어를 출시한 이후 병원과 자사 쇼핑몰을 위주로 제품을 유통해왔는데 보령제약과 손을 잡고 약국 판매를 시작한 것이다.

아크로패스 트러블큐어는 멸균 포장된 마이크로니들 패치 6매와 사용 전 부착 부위를 소독할 수 있는 알콜스왑 6매로 구성되어 있다. 소독용 스왑이 함께 동봉되어 청결하게 트러블을 관리할 수 있다. 전국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라파스와 전문약 분야에서 도네페질 마이크로니들패치 공동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기능성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